

현대불교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경영
빅만평생통장
●매월 최대 금액의 10배 최고
1천원까지 적립해 드립니다.
●30년 이상 계속하면 거래가
안대 따라 생활기금이 최고
30년까지 납입됩니다.
문의전화: 080-023-4099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1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6월 11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30호

“자비 나눔 바람분다”

종단·사찰단위 복지법인 설립 잇따라 추진

교계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천태종 진각종 김재 금산사 공주 양림사가 연내 사회복지법인 설립방향을 확정하고 있으며 (재)태고원과 진안 탐사가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다.

97년을 사회복지봉사에 역점을 두는 해로 정한 천태종(총

무원장 운덕)은 부산과 충청도에 양로원과 중령의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계기로 복지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진각종(통리원장 성호)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사회복지활동을 중점을 두기로 하고 10월까지 복지법인을 설립한다. 현재 자료조사를 마친 상태로 대구 진각회관과 수도원 기로원

운영에 이어 다각적인 시설확충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김재 금산사(주지 도영)는 2월 장애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을 착공한데 이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 금산사는 법인설립을 계기로 시설 수탁은 물론 보호시설 운영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공주시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신청한 함림사(조실 천운)는 어린이·청소년양육시설, 중·고생 장학사업, 양로 정신장애 치매시설 등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왕선)는 진안읍에 노후 아동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확정하고 복지법인설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탐사는 기존의 탐사장학회를 장학재단으로 개편하고 남곡당묘원건립을 사회복지사업에 다각도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한국불교 태고원(이사장 이규범)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태고원은 법인설립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나 구마다 1개소씩 복지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고, 연내 2천6백개의 어린이 집을 세울 예정이다. 특히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에 우선 수탁하고 있어 불교복지법인 설립은 시급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불교복지법인 7개 아동관련 5개 부랑인관련 3개소 등이

(김원우 기자)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제25회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5월 서울에서 열렸다. 7천여 국내외 인사들은 기념식을 갖고 채택한 '환경운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윤리관 환경보존의 새 지평을 열었다. (관련기사 7면)

감사 5천여평 공원수용 위기

공주 계룡산 감사(주지 정영) 토지 5천3백여평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관리공단은 87년 6월 감사 경의지를 계룡산국립공원 감사집단지사지구 야영장 시설지로 지정, 고시했다. 관리공단은 그동안 재정상의 이유로 개발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월10일 감사측에 손실보상합의요청(15억8백30만원)을 하면

서 본격화했다. 이로 인해 감사측이 지난해 10월16일 조계종에 사찰재산처분승인요청을 냈으나 총무원은 "사찰의 풍채와 존엄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지이므로 대규모 야영장을 개발할 경우 사찰의 문화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토지처분승인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감사측은 5월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앙토지처분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내는 등 매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토지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외불교단체 北 국수공장 건립

민족통기 LA본부·미주 평불협·WFB 등 지원

우리민족서도문기LA본부와 평불협 미주본부, WFB(세계불교도우의회) 등 해외불교단체들을 통한 북한주민통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도안스님(美 LA관음사 주지)은 "지난달 23일 북한식당지원을 위해 재미종교인 4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련 서기장

과 별도로 만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며 "조선불교도연맹측에서 이에 대한 합의문을 보내오는 대로 해외 불교단체들과 연대한 북한주민통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안스님은 또 "이번 북한주민통기 운동이 전개될 경우 구호물자 및 자급뿐만 아니라 북한내에 국수공장 건립을 위한 시설지원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은 조별련 심서기장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불교측의 대북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에 따라 구체화된 것이다. 한편 심서기장은 한국불교측의 대북지원이 기독교나 천주교와 비교할 때 다소 미약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해외불교단체나 한국불교측이 지원할 경우 조선불교도연맹으로 창구를 통일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도안스님은 전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의상스님이 창건한 부석사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입니다. 국보와 보물이 즐비한 부석사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무량수전(국보 18호)입니다. 유아한 배움터기둥과 능통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번씩 보고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무량수전 배움터기둥에 기대서서 멀리 소백산의 인봉(隱峯)을 바라보면 우리 산하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을 절절히 실감하게 됩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시원한 계곡과 장대한 회암폭포로 유명한 회암사도 참배합니다.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6월 테마여행 - 부석사·회암사

■ 참가 안내

- 출발: 6월 29일(일) 오전 7시·조계사 앞
- 인내: 이강근 교수(경주대)
- 회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성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민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북돋기 적극 후원하자”

종단협의회사회 바미안대불 훼손반대 결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는 5월 31일 이사회를 갖고 종단별 북돋기 운동 추진과 바미

안 대불 훼손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18개종단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북돋기운동의 관련, 각 종단별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쳐 북돋기운동 추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합동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의 방명단(60명) 및 세부일정 등을 최종화 정했으며 훼손위기에 처해있는 '바미안 대불' 파괴를 반대하는 5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바미안대불 파괴행위 즉각 중단 △바미안 대불 훼손방지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등으로 종단협의회는 6월 2일 바미안대불 훼손반대 결의문을 청와대, 문화체육부, 외무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opia.com

불교소재 광고 왜 뜨나 9면 '法華文句' 첫 원역 15면 불교 청소년쉼터 휴관위기 19면



“지난 35년간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을 알려 온 기업 - 효성중공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배대산업.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꼭 있어야 할 중추산업.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난 35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묵묵히 이끌어 온 효성중공업- 멈추지 않는 도전의식과 기술창조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21세기를 실현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알고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p>전력사업부</p> <p>전력사업부의 핵심 사업은 수력발전기, 모터를 비롯한 전기 기계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p>	<p>가전사업부</p> <p>전력사업부에 이어 가전사업부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p>	<p>자동차사업부</p> <p>자동차사업부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엔진,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p>	<p>건설사업부</p> <p>건설사업부는 주택, 상업용 건물, 산업용 건물 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p>
--	---	--	--